

쟁점 토론 : “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”

중간지원조직은

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영역을 상상하고 행정과 주민 사이의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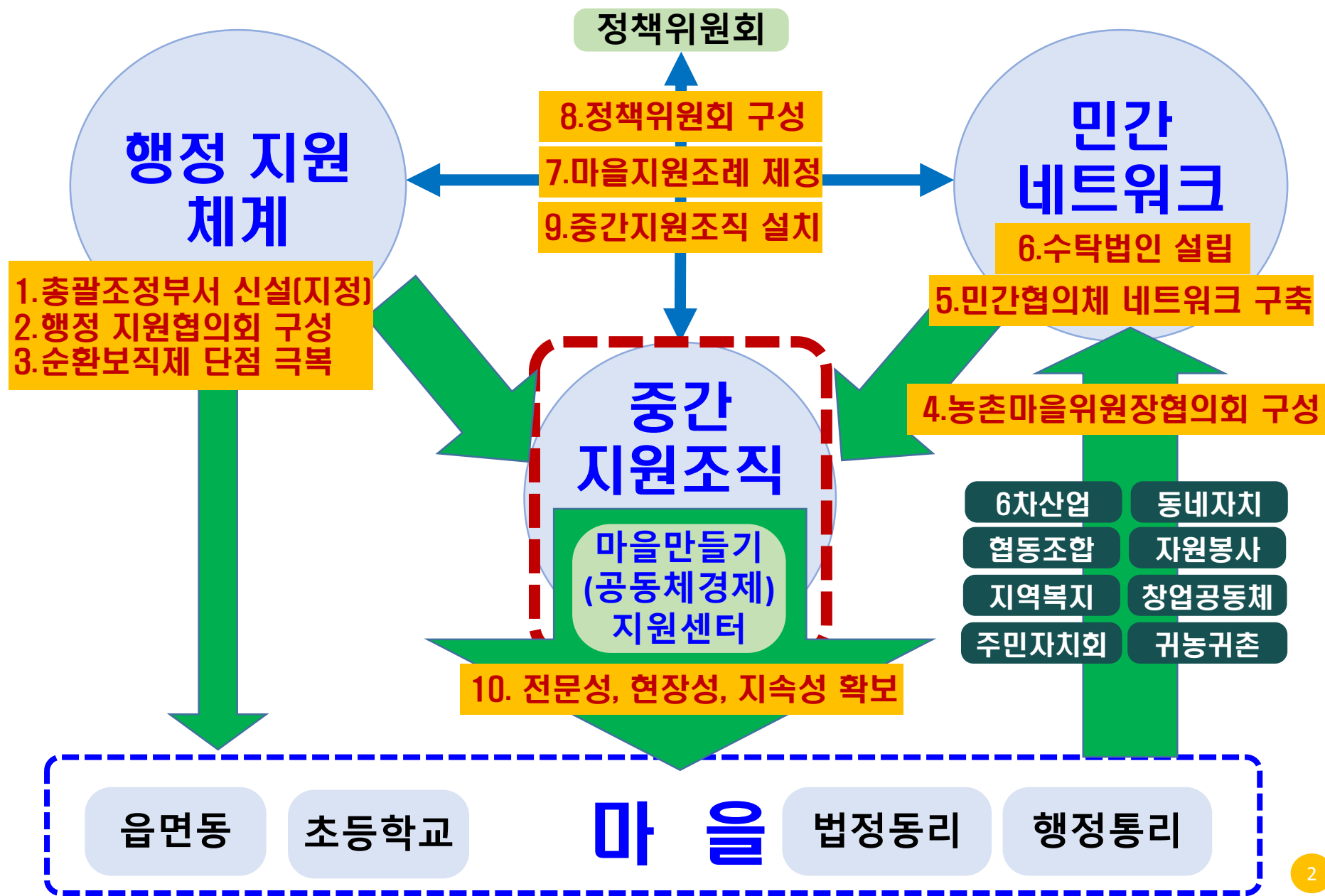
상근자는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는 역할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대등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또 지역에서 수집된 정보와 내부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적극 공개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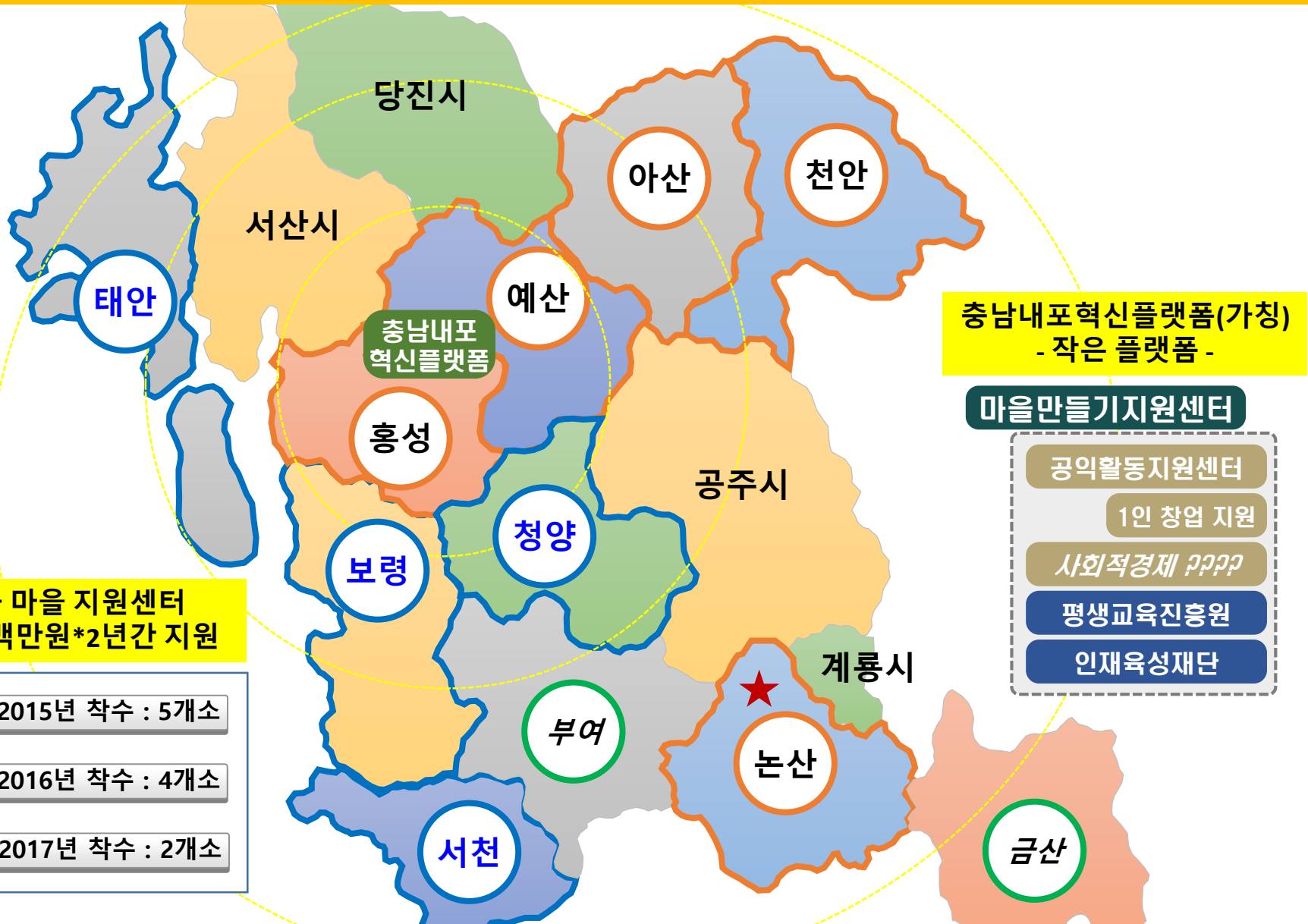
(2015 전국 마을선언 초안, 제26절)

‘주민 주도, 상향식’의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·군 단위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. 아직 역사도 짧기에 시행착오도 있고, 갈등도 없지 않습니다. 지원센터를 어떤 과정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, 지원센터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, 상근자는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등...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할 논의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.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하나의 정답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.

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의 10대 핵심과제



충남 시·군 지원센터 추진상황 _ 2017년 3월 현재, 11개 시·군 추진중



→ 시군별 특성에 맞는 길을 지역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

시.군 자치단체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3_중간지원조직

- 민간 운영 : 예산, 천안, 홍성, 보령 등 4개 시군
- 행정 직영 : 아산, 논산 등 2개 시군
- 2017년 상반기 행정 직영 개소 : 서천, 청양, 태안 등 3개 시군

시. 군	센터명	개소	운영방식	센터장	상근인력	사무실	민간넷
아산시	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	2015.09	행정 직영	-	6명 (사.경, 도시재생 포함)	충남 경제진흥원	아산시공동체 경제네트워크
논산시	논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 (추진단)	2015.10	행정 직영	-	4명	논산시/ 공설운동장	(추진중)
예산군	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	2015.11	보조사업 운영	이경진 (반상근)	3명	공주대학교 (예산)	(추진중)
보령시	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	2016.03	민간법인수탁운영 ('17년 2월 결정)	-	4명	농업인회관	(사)만세보령공 동체네트워크
천안시	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	2016.08	민간법인수탁운영	박두호 (반상근)	4명	원도심종합지 원센터	(사)천안시공동 체네트워크 함께이룸
홍성군	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	2016.11	민간법인수탁운영	염창선 (비상근)	4명	청운대학교 희망관	(사)홍성지역협 력네트워크

※ 2017년 3월 개소 예정 : 서천군(직영 센터) _ 기간제 근로자 2명 근무중

※2017년상반기설립추진중 : 청양군, 태안군(직영센터에서출발)

※2017년신규추진 : 금산군, 부여군(논의시작), 공주시나들이센터(전환모색)

지원센터의 성격과 역할 : “일 잘하는 전문조직”

- (1) 지원센터의 **성격** : 1) 조례에 근거한 행정 ‘사업’
2) 전문가가 상주하는 ‘조직’ 3) 창구역할의 사무실 ‘공간’

(2) 지원센터의 **기본 역할**

- 일상적인 마을 **상담과 컨설팅**
- 찾아가는 마을 주민 교육 등 **맞춤형 교육** 실시
- 사업 **완료지구**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
- 마을 **조사 및 분석**과 정보 수집 및 정리
- **소식지** 제작 및 배포, 홈페이지 및 SNS 관리
- 기타 행정에서 위탁하는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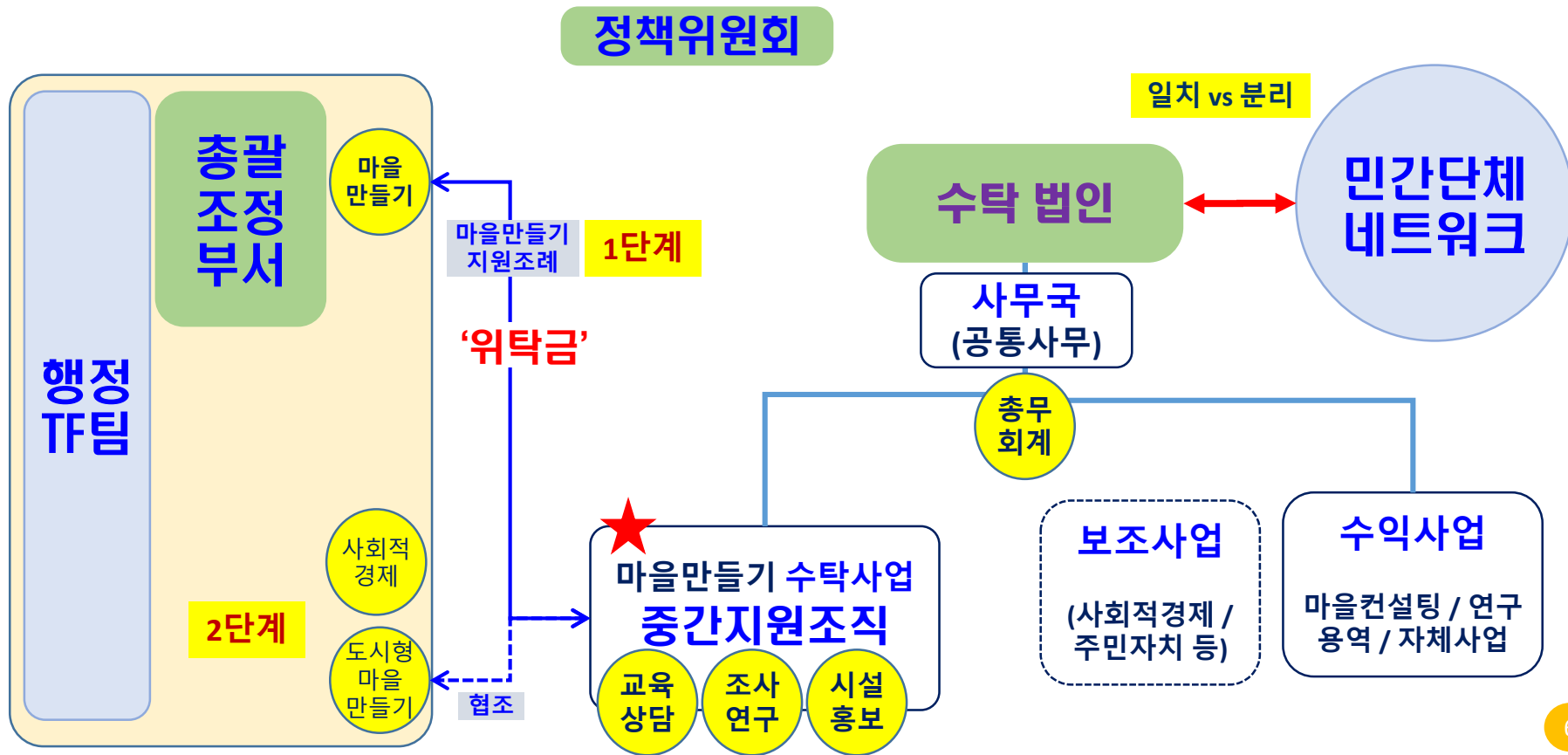
마을의 ‘친구’
마을만들기의 ‘복덕방’
사람과 사람의 ‘중매쟁이’

행정을 대신하여 민간 법인이 수행하는 현장밀착 **공익** 역할

중간지원조직 위수탁 : 행정과 네트워크, 법인의 관계

→ 행정과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
= 민간의 칸막이를 극복한 네트워크 조직 설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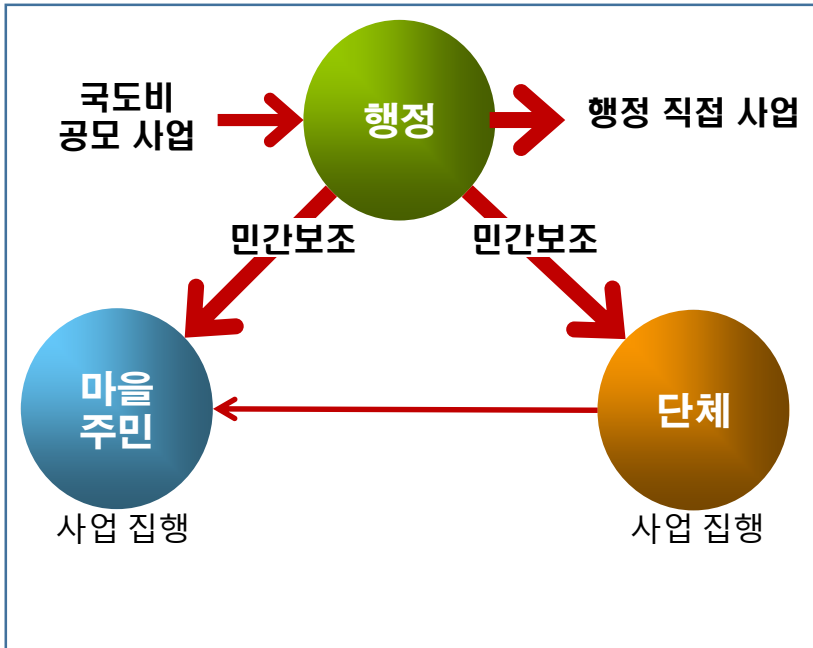
조례(위탁 근거) + 민간 수탁 법인 = 지원센터



[참고] 행정 사업의 추진 방식 _ 중간지원조직 설립 전후 비교

政政民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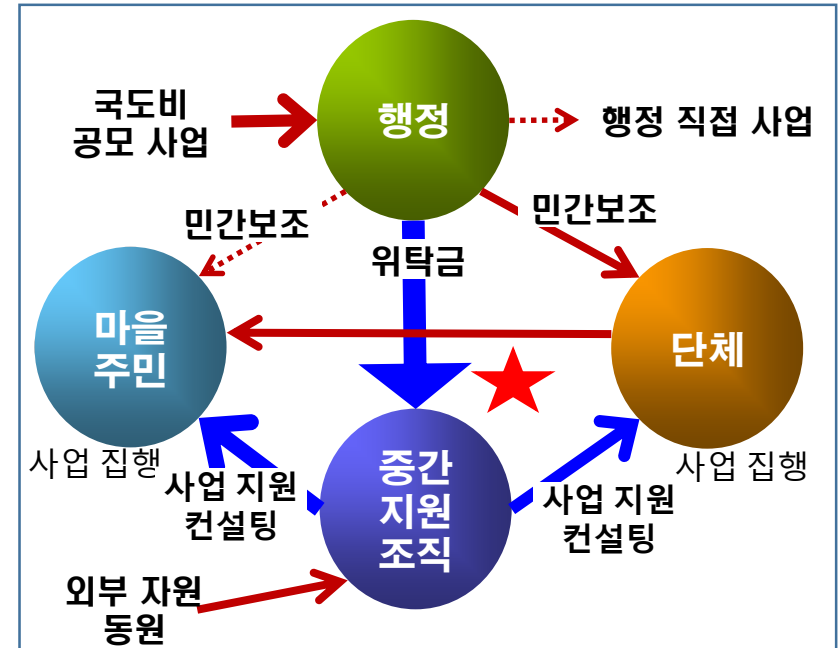
기존 방식 (중간지원조직 설립 전)



행정 역할 : 정책 수립, 예산 확보, 사업자 선정, 지도감독, 사후관리 등

- 행정 업무부담이 과중, 현장밀착 행정 곤란
- 정책의 성과 관리, 사업의 사후 관리가 곤란

신규 방식 (중간지원조직 설립 후)



행정 역할: 정책수립, 예산확보, 지도감독

- 행정의 업무부담이 완화, 고유 역할에 충실
- 현장밀착으로 사업의 사후 관리가 용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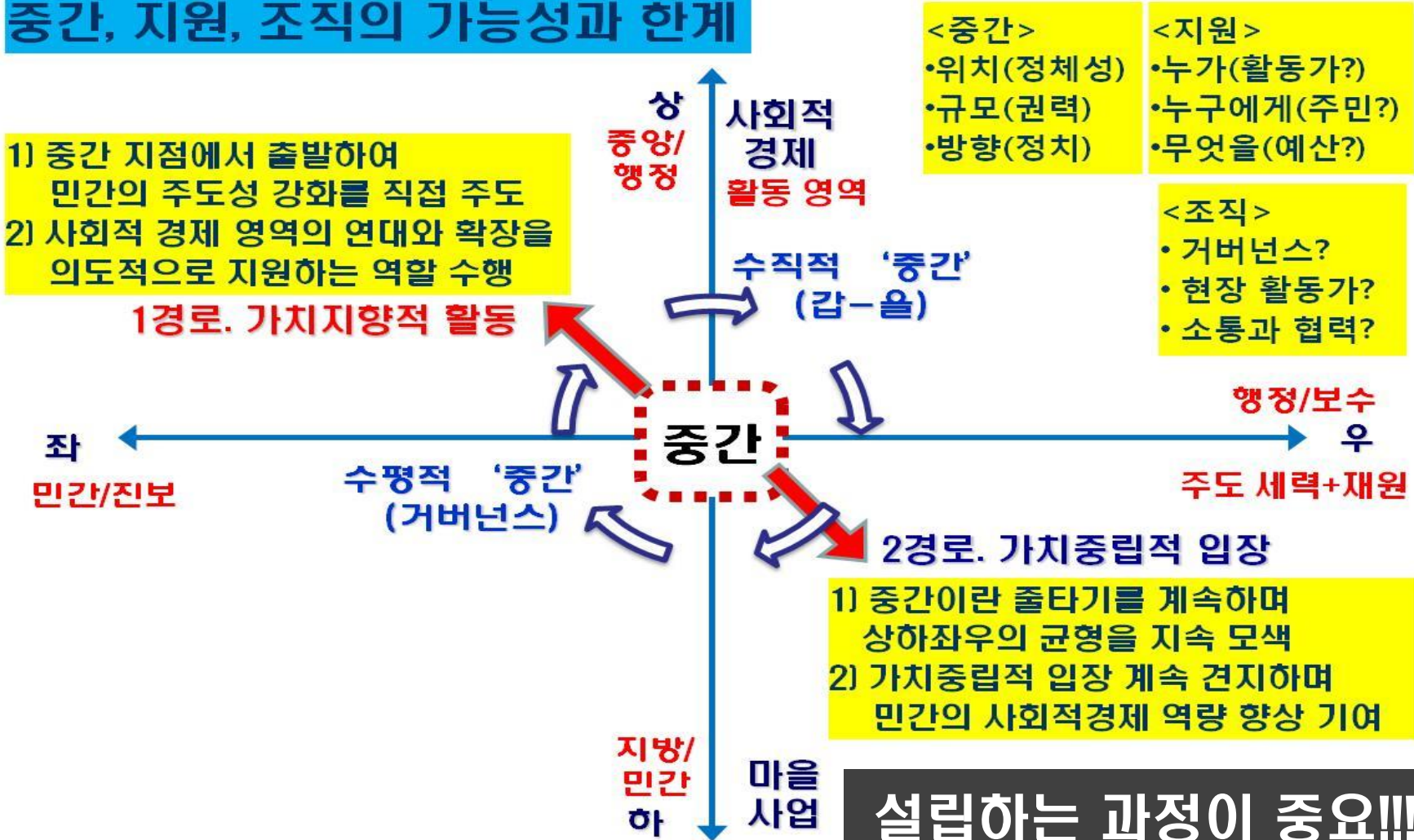
* 화살표의 굵기는 업무량(예산규모)을 의미함

- “행정은 행정답게” : 공공정책 고유 역할에 충실 (행정의 수비범위 고려)
- “민간은 민간답게” : 실제 사업 추진에 충실 (행정은 지원하되 불간섭 원칙)

중간지원조직의 역할 : 보조사업 대행자 vs 주민 위한 바람막이

- ① '중간' '지원' '조직'의 애매모호한 실체. 공적 권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?
- ② 지방자치가 왜곡되고 정착되지 못한 지역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순들...
- ③ "누가 더 공공적인가?"(명분) + "주민들에게 환영받는가?"(과정) → 전략적 선택

중간, 지원, 조직의 가능성과 한계



설립하는 과정이 중요!!!

[참고] 중간지원조직(지원센터) : **오해와 진실**

→ 지원센터(가칭)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행정 사업이자 전문가 조직이며 공간(센터)

1 행정이 직접 하면 되지...

- 공무원이 직접 하면 될텐데 굳이 필요한가?
- 공무원들 지금도 일 안하는데...
⇒ **행정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**
(정책 수립, 예산 확보, 감시감독)
⇒ **지원센터는 전문성, 지속성, 현장성 역할**

2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...

-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가 우려?
⇒ **채용과정에 의원 참여, 공개 채용절차**
- 쓴소리 하는 활동가들 일자리만 보장?
⇒ **조례에 근거한 역할(공공성) 수행**
⇒ **오히려 적은 월급에 지나친 업무가 우려**

3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...

- 한번 만들면 계속 지원하는 악순환?
⇒ **“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”에 해당**
⇒ **2년후 중앙정부 정책적 지원 예정**
- 교육.컨설팅으로 독립채산제 운영해야.
⇒ **수익성만 강조하면 컨설팅업체**

4 지역 내에 전문가도 없는데...

-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?
⇒ **연 평균 2천5백만원(예정)으로 적어서 문제**
- 그 월급에 진짜 전문가가 신청하겠냐?
⇒ **전문가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야...**
⇒ **귀향을 희망하는 출향인 전문가 우선 유치**

- 2016년에 중간지원조직 신규 공모 예정(전국 9개소)
- 2016년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 예산에서 인건비 지원

- 광역 센터(예정)가 전문가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
- 특히 수도권 출향인 전문가 홍보를 통한 유치 지원

[쟁점토론] “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이런 이유로 ...”

7대 쟁점 : 임의로 도출된 쟁점이고, 이외에도 많을 수 있습니다만...

- (1) 중간지원조직(지원센터)의 성격과 역할, 설치과정
- (2) 상근자의 역할과 역량 등을 중심으로 추출

토론 방식 : 1인당 1회 1분 제한. 연속 2회 발언 자제. 최소 1회 이상 발언

- (1) 7대 쟁점에 대해 각각 10분 내외로 토론
- (2) 각 쟁점별로 '동의', '반대'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의견 제시
 - 중간 영역이 아니라 '굳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...' 관점에서
- (3) 슬라이드 화면에 기록을 남기고 함께 보면서 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보
 - 토론을 통해 '다양한 관점(차이)'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존중
- (4) 각자 배포된 A4용지와 스티커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돌아가실 때 제출
 - 행사 결과는 웹진(뉴스레터)에 공개

[쟁점토론1]

“중간지원조직 역할은 행정 공무원이 직접 해도 된다.”

[방법] 쟁점에 대해 '동의' , '반대'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

동의	반대
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. ② 지금도 별로 일하지 않는데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. ③ 꼭 인력이 필요하다면 '기간제 근로자'로 채용해도 될 것이다. ④ 어려운 사업은 용역으로 컨설팅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맡겨도 가능하다.	① 마을 행사는 저녁이나 주말에도 많은데 공무원이 하기 어렵다. ② 공무원은 자주 바뀌어 전문성도 부족하고 마을을 잘 모른다. ③ 기간제근로자의 월급은 너무 적어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다. ④ 컨설팅 기관에 의존하니 지역에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.

[쟁점토론2]

“한번 설치하면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.”

[방법] 쟁점에 대해 '동의' , '반대'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

동의	반대
① 행정이 해야 할 공적인 일을 대신하는 것이니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. ② 더구나 '돈 되는 일(수익)'도 아니니 더욱 지원해야 한다. ③ 어차피 농촌개발사업 예산은 많은 셈이니 그런 예산을 조금만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!!! ④ 수익성만 강조하면 컨설팅업체가 되어 버린다. 적어도 인건비는 확보해줘야 한다.	① 처음 2~3년만 지원하고 나중에는 '독립채산제' 방식으로 독립해야 한다. (행정, 의회) ② 행정 예산에 의존하면 안된다. 스스로 독립하려고 노력해야 한다.(활동가)

[쟁점토론3]

“중간지원조직의 상근자는 **지역 사람**을 채용해야 한다.”

[방법] 쟁점에 대해 '동의' , '반대'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

동의	반대
① 마을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. ② 새로운 사람은 지역의 역사도 문화도 사람도 잘 모른다. 익히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 비효율적이다. ③ 적어도 지역 출신의 출향인이 더 낫다.	① 지원센터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지역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다. 지역, 학연, 혈연으로 압력이 들어오기 쉽다. ② 지역 출신이 아니라도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낫다. ③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역의 인재풀을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.

[쟁점토론4]

“중간지원조직의 ‘중간’ 은 행정과 민간의 중간이다.”

[방법] 쟁점에 대해 ‘동의’ , ‘반대’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

동의	반대
① 행정과 민간(마을) 사이의 ‘중간’ 역할이 핵심이다. ②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마을 현장에 밀착해야 한다. ③ 조례에 규정된 공공 사업의 실무 ‘집행’, ‘취합’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.	① ‘중간’이란 행정-행정, 행정-민간, 민간-민간, 행정-마을 등 다양하다. ② 다양한 그룹 사이의 중간에서 ‘소통’, ‘매개’, ‘조정’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. ③ 행정과 민간의 중간 역할만 강조하다 보면 행정 사업의 대리 집행자에 불과해지기 쉽다.

[쟁점토론5]

“지원센터의 역할은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국한한다.”

[방법] 쟁점에 대해 '동의' , '반대'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

동의	반대
① 조례에 명시된 내용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. ② 행정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 '취합' 요청을 들어주면 안된다. 잘못하면 모든 일을 대행해야 한다. ③ 협약사항과 승인된 사업계획서 이외는 요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.	① 사업예산 이외에 인건비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정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. ②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중요하고 가능하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. ③ 행정 이외에 주민들의 이런저런 요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.

[쟁점토론6]

“행정/마음이 부탁하는 예비계획서 작성도 해야 한다.”

[방법] 쟁점에 대해 '동의' , '반대'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

동의	반대
① 마을 사업의 예비계획서나 공모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지원센터 설치의 목적이고 기본 역할이다. ② 지원센터가 현장포럼과 선행사업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어렵지 않을 것이다. ③ 이것도 안해주면 결국 예산 수립하여 컨설팅 기관 같은 곳에 맡길 수 밖에 없다.	① 지원센터는 예비계획서, 공모 신청서 작성해주라고 설치한 것이 아니다. ② 기본역할도 아니기 때문에 거절해야 하고, 작성해주기 시작하면 일이 너무 많아진다. ③ 공모사업 신청하여 떨어지면 지원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. 그래서 더욱 피해야 한다.

[쟁점토론7]

“지원센터 상근자는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면 안된다.”

[방법] 쟁점에 대해 '동의' , '반대'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

동의	반대
① 지원센터는 '중간' 지원조직이기 때문에 상근자가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면 오히려 갈등을 만들기 쉽다. '가치중립적 입장' 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. ② 개인의 입장 표현이 결국은 지원센터 전체 이미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 현실이다.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. ③ (모법인 임원은 인정하더라도) 지원센터 상근자 개인은 절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면 안된다.	① 지원센터 상근자도 국민의 한사람이다. '표현의 자유'를 억압하면 안된다. ② 오히려 '공익적인 일'이라면 과감하게 주장해야 한다. ③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지원센터 이름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면 내버려둬야 한다. ④ 상근자 개인의 정당 가입과 활동도 자유롭게 인정해야 한다.

[쟁점토론8] 시간이 허락한다면...

“지원센터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한다면.”

[방법] 지원센터의 성격과 역할, 기능 등에 대해

네모 안의 적절한 단어를 상상하여 적어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

마을만들기(공동체) 지원센터는

[이]다.

[예시]

마을의 ‘친구’

마을만들기의 ‘복덕방’

사람과 사람의 ‘중매쟁이’